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 위원회는 ‘2013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을 공모한다.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3년 5월 1일 사이 국내에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준공건축물 부문’과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계획작품을 대상으로 한 ‘계획건축물 부문’으로 나눠 시행한다.

준공건축물 부문은 오는 6월 7일까지, 계획건축물 부문은 5월 20일부터 5

월 28일까지 참가신청 해야 하고, 작품접수는 준공건축물 부문 6월 10~11일, 계획건축물 부문은 5월 30~31일 각각 양일이다.

준공건축물부부는 ‘사회·공공부문’, ‘민간부문’, ‘공동주택부문’, ‘일반주택부문’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대상, 본상, 우수상을 선정해 시상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작품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대통령상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이 각각 수여되며, 본상 수상작 4개 작품에는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국무총리상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이, 우수상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서울경제신문사장 공동명의 상이 수여된다.

계획건축물 부문의 작품 주제는 ‘지역×문화, 再生...’이며, 대상 1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국토해양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상 5점에게는 상금200만원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이 수여되며 대상과 마찬가지로 해외건축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선과 입선에게는 각 100만원, 30만원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이 수여된다.

또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1인을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으로 선정, 국토해양부장관상과 트로피를 수여하며, 한국건축문화대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 LH, 대한주택보증(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건축의 본질과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 건축물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전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홈페이지(<http://kaa.kira.or.kr>)나 본지 528호(2013년 4월호 00페이지)에서 참조하면 된다.

2013년도 ‘제2회 어린이건축창의교실 및 한옥체험행사’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는 2013년 어린이날과 연계하여 ‘제2회 어린이건축창의교실 및 한옥체험행사’를 오는 5월 3일(금)부터 5월 4일(토)일까지 1박2일간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어린이에게 건축을 통한 창의력 개발과 우리 건축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참가자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생 120명이며, 신청동기와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집’, ‘건축사님께 - 이런 건축물을 만들어주세요’ 지정 글을 작성한 어린이 중 120명을 선정하여 개최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4월 5일(금)부터 4월 12일(금) 18:00까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buildSMART 포럼 2013’ 개최

(사)빌딩스마트협회, (사)한국건설IT융합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buildSMART 포럼 2013’이 오는 4월 18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논현동 건설공제조합 2층에서 개최된다.

2008년을 처음으로 올해 6회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은 BIM이 점차 널리 확산됨에 따라, 산업계의 BIM에 대한 요구사항이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이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계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직접적인 답변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건축사를 비롯해 건설사, 엔지니어링, FM 및 관련업체 및 개인 등이며, 1차 사전등록은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2차 사전등록은 오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빌딩스마트협회 사무국(070-7012-04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진엔지니어링,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개설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유상천, www.sunjin.co.kr)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선진엔지니어링은 기존 홈페이지와 별도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sunjinea)를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진엔지니어링의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은 홈페이지만으로는 부족했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수주소식 등 최신 정보는 물론 건축과 엔지니어링에 관한 공감할만한 이야기들을 폭



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선진엔지니어링사들은 대중과의 직접적인 접점이 없다는 이유로 SNS를 통한 소통에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이번 선진엔지니어링의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은 매우 이례적인 동시에 긍정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선진엔지니어링의 관계자는 페이스북에 관해 “지금까지 업무를 통해 만난 국·내외의 많은 클라이언트와 관계자들이 회사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고 싶어했는데 그 해결책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특히 우리 선진엔지니어링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닌 종합건설업을 제공하는 만큼, SNS를 통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는 잠재적인 고객 확보는 물론 대중들에게 건축·엔지니어링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선진엔지니어링은 페이스북 외에도 비즈니스 소셜미디어인 링크드인(Linkedin)에도 공식 페이지를 함께 개설함으로써 SNS활동 강화에 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제3회 정동 도시건축 세미나

정동 도시건축 세미나가 오는 4월 21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주제는 ‘튀는 도시, 참한 도시’로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의 저자인 정석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주재한다.

자세한 문의는 구가도 시건축(02-3789.3372/www.guga.co.kr)으로 하면 된다.

튀는 도시, 참한 도시

제3회, 정동 도시건축 세미나



도시란 건물들이 집합체이다. 기법이 발명품도 아니다. 예술작품도 아니다. 도시는 자연과 인공의 결합,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물과 사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 또는 생명체다. 좋은 도시란 만드는 것은 물론 사멸도 어려운 것이 고대 도시를 빼고는 없다. 생명이 도시를 위해 뛰게 될지 참한 도시, 참한 도시가 된다. 튀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도시생명이 아니라 참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도시생명이다. 어떤 도시가 참한 도시인가?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 벽화와 개성이 남아있는 도시, 차분히 사람을 밝히는 도시, 무의 손으로 만든 도시가 참한 도시다.

정석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저자

일시: 13.04.12, 금. 7:30pm.부터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세미나실
참가비: 4,000원
문의: 02. 3789. 3372 (구가도시건축)
www.guga.co.kr



신간안내

구본준의 마음을 품은 집: 그 집이 내게 들려준 희로애락흥 怒哀樂 건축 이야기

구본준 저 | 352쪽 | 서해문집



저자는 「한겨레」신문에서 대중문화팀장, 책지성팀장, 기동취재팀장, 기획취재팀장 등을 지냈고 지금은 문화부 기자로 일하면서 건축과 미술을 소개한다. 그는 ‘땅콩집’을 지은 이야기를 담은 『두 남자의 집짓기』, 어린이를 위해 썼지만 어른들이 더 많이 읽은 『별난 기자 본본 우리 건축에 폭 빠지다』 등의 건축 분야 책과 『한국의 글쟁이들』, 『서른살 직장인 책임기를 배우다』 같은, 책에 대한 책을 썼고, 특히 이번 신간 『구본준의 마음을 품은 집』은 건축에 대한 저자의 오랜 애정이 녹아든 책으로, 시공간을 넘나들며 여러 건축들이 품고 있는 마음속 이야기를 옷듯이 담았다.

이진아기념도서관,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봉하마을 묘역, 창덕궁 정자 등에서 저자는 이야기를 통해 건물의 희로애락을 읽어낸다. 쉽고 재미있게 쓰여진 건축물들의 뒷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새 독자들도 건축에서 인생을 읽어낼 수 있다

건축을 위한 철학: 세상에 단 하나뿐인

브랑코 미트로비치 저/이충호 역 | 280쪽 | 컬처그라퍼

이 책은 건축사, 건축 실무자,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이 설계 작업에서 맞닥뜨리는 광범위한 철학적 문제들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에 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대 건축 및 건축 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철학적 견해들을 순서대로 소개함으로써 각 시대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건축과 그 배경이 되는 철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축은 근원을 아는 철학의 바탕 위에서 생각할 줄 아는 장인이 구사하는 기술이다. 하이데거의 ‘짓기, 거주하기, 사고하기는 사람은 ‘짓지 않으면’ 거주를 사고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집을 ‘짓는 것’이 인간 존재에 이렇듯 중요하다. 건물을 ‘짓는 것’은 하이데거가 지적하였듯이 거주하고 사고하는 것의 출발이며 근본이다. 그러니 건축하는 사람이 철학을 알고 철학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김광현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는 추천했다.

